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2, pp.1-44  
<https://doi.org/10.29212/mh.2019..11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군 경험과 『국방개론』 저술

김지훈\*

1. 머리말
2. 중국 국민혁명군 참여와 군수참모 활동
3. 중국 군사교육기관 수학과 국방 이론의 형성
4. 한국군 육군사관학교장 역임과 『국방개론』 저술
5. 맺음말

## 1.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은 고도로 산업화된 근대국가들 간의 장기적인 소모전이였다. 종전 이후 열강 각국은 전훈(戰訓)을 토대로 향후 도래할 전쟁양식으로 총력전에 주목했다. 이 시기 총력전의 개념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요소를 총동원하고 이를 유기적

\* 대림대 강사

으로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전시 하 적국에 의한 봉쇄를 상정하고, 평시부터 자원과 원료를 자국 내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자립경제’의 건설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sup>1)</sup>

총력전은 군사사상<sup>2)</sup>으로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 이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수정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경제의 재편과 군사력의 확충이 중시되었다.<sup>3)</sup> 특히 일본에서는 군부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방면의 총력전 복무를 요구하며 ‘국방국가’로의 급진적 개조가 모색되었다.<sup>4)</sup> 또한 총력전을 대비하는 국가주도의 ‘근대화’에 대한 성격이 논의되기도 했다.<sup>5)</sup>

이처럼 일국의 경제적 생존과 군사적 역량을 종합하여, 이를 안보 혹은 ‘국방’으로 이해하는 것은 총력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도 국방 문제를 다룬 연

- 1) 총력전 이론을 집대성했다고 알려진 루덴도르프에 따르면, 총력전은 ‘생존투쟁의 발양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인적·물적 역량을 발휘하는 새로운 전쟁양식’으로 정의된다. 그는 총력전의 기초로써 ‘국민정신의 단결’(Seelische Geschlossenheit des Volkes)과 ‘경제’(Wirtschaft)를 제시했다(Erich Ludendorff, *Der Totale Krieg*, Ludendorffs Verlag, 1935; 루데ンドルフ 著, 間野俊夫 譯, 『國家總力戰』, 三笠書房, 1938; 루덴돌프 저, 최석 역, 『국가총력전』, 대한민국제향군인회, 1972).
- 2) 군사사상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확장에 관해서는 박창희, 「군사사상 연구를 위한 방법론 구상」, 『국방정책연구』 32(2), 2016 참조.
- 3) 山田朗, 「帝國主義と軍事力編成: 國家總力戰型軍事力編成を中心に」, 『歴史評論』 422, 1985, 94~95쪽.
- 4) 마이클 A. 반하트 저, 박성진·이완범 역, 『일본의 총력전: 1919~1941년 경제 안보의 추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5) 총력전이 추동하는 국가주도의 ‘근대적 합목적성’에 주목함에 따라 과시즘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山之內靖, 「方法的序論 - 總力戰とシステム統合」, 山之內靖 외 편, 『總力戰と現代化』, 柏書房, 1995, 9~40쪽). ‘총력전체제’론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마쯔모토 다케노리, 「총력전체제’론과 ‘현대’ -일본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면서-」, 『역사문제연구』 13, 2004; 나카노 도시오 저, 서민교·정애영 역, 『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전후 민주주의 사상』, 삼인, 2005; 방기중·전상숙, 「일본과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 - 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 방기중 편 『식민지 과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2006; 홍수경, 「총력전체제’론의 이해를 위하여: 야마노우치 야스시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학림』 27, 2006.

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다만 연구의 지형은 국방국가 등을 모토로 일제의 총동원이 가동된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그리고 국방이라는 언설이 다분히 등장한 박정희 정권시기로 양분·집중되어 있다.<sup>6)</sup>

1940년대 중후반부터 1950년대까지의 시기 국방 이론에 관한 검토는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 시기는 정부의 수립과 군대의 창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사상이 정초된 중요한 지점이다. 1940년대 중후반부터 1950년대까지의 국방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기존의 연구사적 공백을 메꾸는 동시에, 군사 분야에서 해방 이전과 이후의 경험과 사상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김홍일의 국방 이론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김홍일의 국방 사상에 관해서는 1949년 저술한 『국방개론』<sup>7)</sup>이 주목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김홍일이 『국방개론』을 통해 ‘건군의 사상사적 지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를 부여했다.<sup>8)</sup> 다만 김홍일의 국방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김홍일은 임시정부 활동과 연계되어 주로 독립운동사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sup>9)</sup> 해방 이후 김홍일 관련 연구로는 한국전쟁 개전 직후 한강선 방어전투에서 그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김홍일의 국방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군사경력에서 중

6) 박정희 정권 시기의 연구는 허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지주의」, 『한국사연구』 150, 2010;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 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사총』 84, 2015; 「냉전분단시대 ‘대유격대국가’의 등장」, 『한국사학보』 65, 2016 참조.

7) 김홍일, 『국방개론』, 고려서적, 1949.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54~58쪽.

9) 한상도, 「일제하 재중한인독립운동의 국제적 배경 : 중국군별정권 및 국민당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대사학』 8, 1993;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 윤상원, 「1920년대 전반기 김홍일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2014; 『김홍일 : 대륙에 용맹을 떨친 맹장』, 역사공간, 2015.

10)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한강선 방어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99, 2016.

심을 이루는 중국 국민혁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국민혁명군에서 소장(少將, 한국군 준장) 승진하며 국방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sup>11)</sup> 이는 1948년 당시 한국군 창설에 참여한 일본, 중국, 만주 출신 장교 중 독보적인 경력이었다. 최근에는 김홍일의 중국군 경험을 다룬 연구가 제출되었다.<sup>12)</sup>

기존연구를 토대로 본고는 김홍일의 국민혁명군 복무 중 군수참모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혁명군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그가 수학한 국방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는 김홍일이 군수참모 경험을 국방론이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이론화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리고 귀국 이후 김홍일이 한국군의 창설에 참여하며 저술한 『국방개론』을 주목해보고 김홍일이 개진한 국방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고는 김홍일의 회고록<sup>13)</sup>과 저작 『국방개론』을 주요하게 참고하겠다. 그리고 김홍일의 서술에 대한 사료비판 및 국민혁명군의 국방이론을 분석하기 위해 대만 국사관 문서들을 활용할 것이다.

## 2. 중국 국민혁명군 참여와 군수참모 활동

김홍일은 1898년 9월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출생했다. 그는 청년

---

11) 군인 김홍일은 독립군, 중국군, 광복군 등 다양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민정부 국민혁명군 경험이다. 그는 1920년대 전반 호법전쟁, 1920년대 후반 북벌전쟁에서 군벌을 타파하며 소위에서 상교(대령)까지 승진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여하며 소장(준장)으로 승진하며 고급지휘관 및 참모로서 경력을 다졌다.

12) 한시준, 「중국군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홍일」, 『사학지』 57, 2018.

13)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기 국내에서 추진한 민족교육운동이 좌절되자, 독립운동의 방략을 군비양성으로 전환했다. 1918년 하반기 김홍일은 중국 안동(安東)을 경유하여 상하이(上海)로 도향했다. 그 해 12월 김홍일 상해임시정부와 중국 측 지인들의 도움으로 귀주육군강무학교 제2기에 특별 입학할 수 있었다.<sup>14)</sup>

김홍일은 중국에서 근대적인 장교교육을 받았다. 당시 중국에는 각지의 군벌들이 근대식 사관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귀주육군강무학교도 이러한 군사교육기관 중 하나였다. 귀주 강무학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을 다녀온 운남 출신 교관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에 의해 체계적인 장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5)</sup> 당시 귀주 강무학교의 교장은 허잉친(何應欽)이었다. 후일 허잉친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국방장관까지 올랐는데, 김홍일은 이때부터 주로 허잉친의 휘하에 있었다. 1920년 초 김홍일은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귀주육군강무학교를 200명 중 15등으로 졸업했다. 곧이어 육군실시학교에 진학하여 6개월간 병과별 교육을 받고 산포병과를 졸업했다.<sup>16)</sup>

1920년대 전반기 중국과 연해주에서는 내전과 혁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한반도를 떠난 많은 한인들이 해외에서

14) 김홍일, 앞의 책(1972), 47~61쪽; 김종문, 앞의 글, 178~180쪽; 윤상원, 앞의 책, 8~22쪽.

15) 귀주육군강무학교는 1912년 운남 군벌 탕지야오(唐繼堯)가 귀주를 점령하고 세운 군사학교다. 귀주육군강무학교의 주요 간부들은 운남육군강무학교 출신이었는데, 운남육군강무학교의 교관 대부분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운남육군강무학교의 교육내용은 전술학, 축성학, 병기학, 지형학, 교통학, 마학, 측화학 등의 학과교육과 보병교련, 야외근무, 사격교범, 진중요무령 등의 훈련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운남육군강무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본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운남 출신 교관들이 주축이 된 귀주육군강무학교 역시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45쪽; 윤상원, 앞의 책, 21~23쪽).

16) 김홍일, 앞의 책(1972), 69쪽.

군사교육을 받고 이러한 전쟁에 참여했다. 이 시기 김홍일의 군 복무 역시 내전과 혁명의 격랑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1920년 연간 김홍일은 귀주군에서 복무하며 쑨원(孫文)의 광동정부 편에서 북벌과 제2차 호법전쟁에 참여했지만, 귀주군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자 중국군을 떠났다.<sup>17)</sup> 이후 김홍일은 간도와 연해주의 한인사회로 이동하여 무장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김홍일은 대한군비단 및 대한의용군에 참가하여, 소련과 원동공화국을 도와 백군 및 일본군을 상대로 승전을 경험했다. 하지만 무장투쟁의 물질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다. 무엇보다도 자유시사변 이후 한인 단체 간의 이해 차이와 적백내전 이후 소련 측의 견제로 무장투쟁은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sup>18)</sup>

1920년대 후반기부터 김홍일은 국민혁명군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군사경력을 쌓아나갔다. 김홍일은 국민혁명군에서 활동하는 한인·중국인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국민혁명군에 참가하여 북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홍일로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악조건 속에 무장투쟁을 강구하는 대신, 중국혁명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일전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선택이었다.<sup>19)</sup> 김홍일은 상하이를 경유하여 1926년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산터우(汕頭)에 도착했다.<sup>20)</sup> 산터우에는 북벌을 위해 국민혁명군 동로군 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11월 김홍일은 중국 국민당에 가입하고 국민혁명군 복무를 시작했다.<sup>21)</sup>

국민혁명군의 북벌 당시 김홍일은 주로 참모를 맡았다. 김홍일은

17) 김홍일은 북벌과 제2차 호법전쟁 당시 허영진의 혼성여단에서 기관총 소대장, 탄약관리장교, 연대 부관 등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연성자치운동 및 귀주군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자 그는 중국군을 떠나게 되었다(김홍일, 앞의 책(1972), 69~71쪽).

18) 윤상원, 앞의 글, 48~64쪽.

19) 김홍일, 앞의 책(1972), 206~209쪽.

20) 김홍일, 앞의 책(1972), 217~218쪽.

21) 「邵毓麟呈蔣中正擬准韓人王逸曙除役返國服務」, 『蔣中正總統文物』, 典藏號: 002-020400-00034-143, 國史館, 1948.05.19.

1926-27년간 국민혁명군의 1차 북벌에서 허잉친이 이끄는 동로군의 총지휘부 참모로 복무했다. 1928년 2차 북벌 때는 군수참모로 활동했다. 그동안 김홍일은 소교(少校, 소령)에서 상교(上校, 대령)까지 진급했다.<sup>22)</sup> 1차 북벌 당시인 1927년 8월말 김홍일은 일선 전투에 단(團, 연대)장급으로 참가하기도 했었지만,<sup>23)</sup> 군수참모로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2차 북벌 때였다. 1928년 2차 북벌 당시 김홍일은 상교 계급으로 군계처(軍械處) 통계과장 보직을 맡았다. 군계처는 국민혁명군의 군사최고기관인 군사위원회에 속해있었다.<sup>24)</sup> 군계처는 국민혁명군 전체의 군수를 담당하는 군사위원회의 참모부서였다.

군계처 통계과장으로서 김홍일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을까. 그의 회고에 따르면 통계과장직은 ‘일거리가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자리’였다.<sup>25)</sup> 특히 북벌 당시 국민혁명군의 무기체계는 일관되지 않았다.<sup>26)</sup> 국민혁명군이 군벌의 연합군에서 국민당의 당군으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김홍일의 군수지원 임무는 복잡했다. 부대와 병기 별로 소모량 통계를 내고 또한 전투의 양상과 정도를 고려하여 탄약과 병기의 보충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또한 일선 부대는 공연히 탄약 소모량을 과대하게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가 직접 전선에 나가 실정을 조사해

22) 김홍일, 앞의 책(1972), 217~228쪽.

23) 1927년 8월말 김홍일은 신편 단(團, 연대)장 대리를 맡던 도중 난징 근교의 룡탄(龍潭)으로 출동했다. 김홍일의 부대는 제1군 바이충시(白崇禧)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제22사(師, 사단)에 합류하여 직계군벌 쑤환팡(孫傳芳)에 맞서 장강을 방어하는 전투를 치렀다. 김홍일은 용담전투의 공으로 공로장을 받았다. 김홍일은 용담전투 이후에도 제22사에서 단장으로 복무하였다(김홍일, 앞의 책(1972), 237~241쪽).

24) 원래 군계처는 국민혁명군총사령부 군계과였었다. 1927년 6월 군사위원회 산하 군계처로 개조되었다(『軍政部大事記(民國三十三年以前)之兵工部分』, 『軍政部大事記(四)』 2, 典藏號: 008-010706-00027-002, 國史館, 1927~1943).

25) 김홍일, 앞의 책(1972), 244쪽.

26)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 소총의 경우 일제 65구경, 독일제 79구경, 러시아제 76구경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관총이나 대포도 마찬가지였다. 김홍일, 앞의 책(1972), 244쪽 참조.

야만 했다. 그리고 보충계획에 따라 각 병공창(兵工廠)에 매월 각종 병기와 탄약의 제조를 발주해야하는 임무 역시 까다로운 것이었다.<sup>27)</sup>

1928년 7월 장제스(蔣介石)의 북벌이 수차의 부침 끝에 3년여 만에 종료되었다. 북벌 이후에도 김홍일은 군수참모 일을 맡았다. 이 무렵 김홍일은 우송요새(吳淞要塞) 사령부의 참모장직을 거쳐 상하이병공창의 병기창 주임 보직을 맡았다.<sup>28)</sup>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계처는 국민혁명군 전체의 군수를 관장하는 부서였는데, 당시 상하이, 진링(金陵), 한양(漢陽) 등 각지의 병공창에 인원을 파견하여 병기생산을 관리하고 있었다.<sup>29)</sup> 김홍일은 군계처 통계과장을 맡다가 상하이병공창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은 상하이병공창에서 야포와 소총의 생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sup>30)</sup> 또한 그는 1930년경부터 상하이병공창뿐만 아니라 연시산의 병공창에서 탄약을 조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sup>31)</sup>

27) 김홍일, 앞의 책(1972), 244~245쪽.

28) 김홍일, 앞의 책(1972), 268쪽.

29) 『軍政部大事記(民國三十三年以前)之兵工部分』, 『軍政部大事記(四)』 2, 典藏號: 008-010706-00027-002, 國史館, 1927~1943.

30) 다만 상하이병공창은 청조 말엽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김홍일이 근무한 1930년대 초반에 이미 구식 설비였다. 당시 상하이병공창을 비롯한 중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소총과 경기관총 등 간단한 무기와 탄약뿐으로 중포, 전차, 장갑차 등은 생산할 수 없었다(張燕萍, 「抗战前国民政府经济备战的军事价值初探」, 『民国档案』, 2003(4), 118쪽).

31) 연시산이 관리하던 산시성(山西省) 병공창에서 독일 크루프제 75mm 야포 및 150mm 중곡사포 포탄, 7.92mm 마우저 소총탄 등을 철도로 보급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사료된다. ‘왕웅’ 이름으로 등장하는 다음의 문서가 참조된다. 「王雄等電王股長本日只批撥七五克式野砲彈五千顆十五生重砲彈千餘」, 『蔣方民國19年5月往來電文錄存(三)』 12, 典藏號: 116-010103-0059-012, 國史館, 1930.05.19.; 「王雄電王股長今日批撥七九步彈四百萬現交涉火車即可起運」, 『蔣方民國19年5月往來電文錄存(三)』 50, 典藏號: 116-010103-0059-050, 國史館, 1930.05.22.; 「王雄電王股長除十五生的彈另議外均照一日電領來准今晚開車」, 『蔣方民國19年7月往來電文錄存(一)』 17, 典藏號: 116-010103-0065-017, 國史館, 1930.07.03.; 「王雄電王股長現接遼方正式通知准撥七九彈二百五十萬等」, 『蔣方民國19年7月往來電文錄存(四)』 46, 典藏號: 116-010103-0068-046, 國史館, 1930.07.28.; 「王雄電王股長今早奉張

주목되는 점은 상하이병공창에서 김홍일의 군수참모 경험이 단순히 포탄의 생산과 관리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상하이병공창 관리 경험은 1930년대 전반 국민정부의 대일 전략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해 가능하다. 1932년 1월 28일 일본이 상하이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국민정부는 일본과의 지구전을 염두하고,<sup>32)</sup> 전략후방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하이사변 당시 상하이병공창 등 중국 동남해안에 집중된 군수산업이 일본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민정부는 군수산업의 중심을 동남임해에서 서쪽 내륙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sup>33)</sup>

전략후방기지 건설 및 군수산업 재배치 계획에 입각하여 1932년 9월부터 상하이병공창의 가동이 중지되고 군수설비가 항저우(杭州)로 이전되었다.<sup>34)</sup> 이 시기 김홍일은 윤봉길에게 폭탄을 조력하고 일본을 피해 상하이로 떠나 있었다.<sup>35)</sup> 때문에 병공창의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근무했던 1932년 상반기부터 이미 병공창의 시설과 설비들이 선박과 기차에 실려 난징(南京)과 항저우로 이전되고 있었다.<sup>36)</sup> 상하이병공창의 주인이었던 김홍일 역시 병공창 설비 재배치의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36년 중반 무렵,<sup>37)</sup> 초공작전을 마친 김홍일은 군수설계위원(軍

學良電話命令准撥七九彈四百萬克式砲彈五千」, 『蔣方民國19年7月往來電文錄存(四)』 56, 典藏號: 116-010103-0068-056, 國史館, 1930.07.29.

32) 郭岱君 主編, 『重探抗戰史(一): 從抗日大戰戰略的形成到武漢會戰(1931-1938)』, 聯經出版公司, 2015, 168~171쪽; 기세찬,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권사전략(1937-1945)』, 경인문화사, 2013, 33~35쪽.

33) 기세찬, 앞의 책, 50~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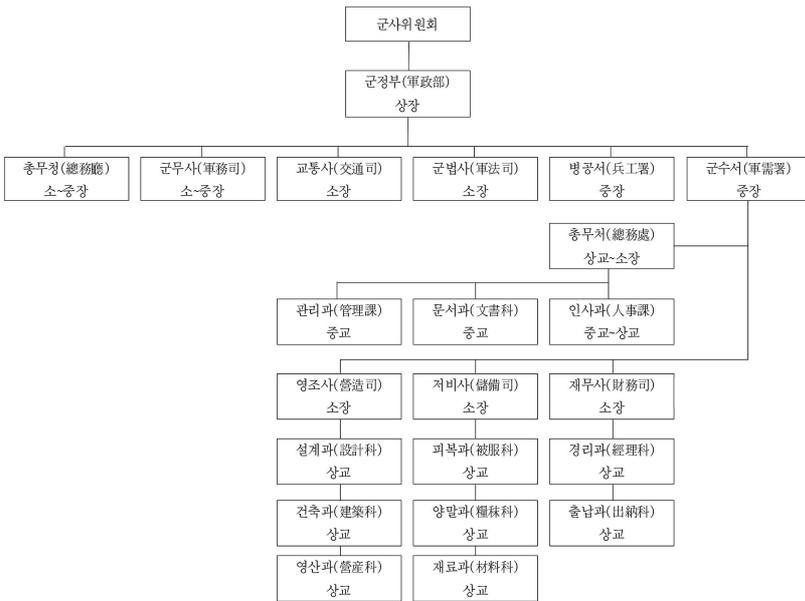
34) 張燕萍, 앞의 글, 118~119쪽.

35) 1932년 4월말 김홍일은 윤봉길의 의거에 폭탄을 제공해주었다. 이 일로 김홍일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왕일서(王逸曙)로 개명한 후 상하이로 떠나 난징 공병학교의 부관처장으로 부임했다(김홍일, 앞의 책(1972), 283~291쪽).

36) 김홍일, 앞의 책(1972), 278쪽, 284쪽.

需設計委員)으로 발탁되었다. 이 직책의 조직체계를 정확히 제시하자면, ‘군사위원회-군정부-군수서-군수설계위원’으로 파악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림 1>을 참고하여 각 부서들의 체계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중반부터 국민정부가 취한 국방건설이라는 전략 하에서 김홍일이 참여한 군수설계위원의 역할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1> 군정부 계통표



- 출처 : 『軍政部組織法案附編制表』,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 3, 典藏號 008-010705-00007-003, 國史館 1935.04; 中國第二歷史檔案館 『軍政部成立經緯與組織概要』(1935.4), 『中華民國國史檔案資料匯編』 第5輯 第1編 軍事(1), 鳳凰, 1994 참고.

37) 김홍일, 앞의 책(1972), 309쪽; 박경석, 『전용실록소설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222~223쪽.

군사위원회는 국민정부의 군사최고기관이었다. 군사위원회에는 군정과 군령이 통합되어 있었고, 국민혁명군의 인사·교육·예산·전략 건설 등에 관한 의결을 수행했다. 군사위원회는 1932년 3월 1일 설치되었다. 군사위원회의 설치는 내부적으로는 군벌 군대에서 출발한 국민혁명군의 조직과 편제를 통일하고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향후 도래할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1935년 이후 국민정부가 내부 군벌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공산당을 구축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일전 준비가 본격화 되었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는 장기적인 총력전에 입각한 대일 전략을 전제하고, 군사와 경제의 결합을 중시하며 국방 건설에 착수하였다.<sup>38)</sup>

군정부는 국민혁명군 육해공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1928년 11월 설립되었고,<sup>39)</sup> 1932년부터는 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았다. 군정부의 부장은 상장(上將, 중장)이었고, 각 기관의 장들은 중장(中將, 소장)이나 소장(少將, 준장)이 맡았다. 이러한 군정부의 역할은 오늘날 한국의 국방부에 견줄 수 있다. 당시 군정부에는 총무청, 군무사, 교통사, 군법사, 병공서 그리고 군수서 등이 있었다.<sup>40)</sup> 이 중 주요 부서는 병공서와 군수서였다.<sup>41)</sup> 병공서는 무기의 제조, 구매,

38) 기세찬, 앞의 책, 40~42쪽.

39) 中國第二歷史檔案館, 『軍政部條例』(1928.11.21),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5輯 第1編 軍事(1), 鳳凰, 1994, 48~50쪽.

40) 『軍政部組織去草案附編制表』,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3, 典藏號: 008-010705-00007-003, 國史館, 1935.04; 中國第二歷史檔案館, 『軍政部成立經討與組織概要』(1935.4),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5輯 第1編 軍事(1), 鳳凰, 1994, 50~59쪽.

41) 편제인원 면에서도 군정부의 중심은 병공서와 군수서였다. 1937년의 경우 군 정부 편제 총원 1,579명 중 군수서는 254명(16%), 병공서는 375명(24%)이었다. 1945년의 경우 군정부 편제 총원 2,685명 중 군수서는 488명(18%), 병공서는 642명(24%)이었다. 이외에 군수서에서 분리되어 나간 회계처(會計處)의 인원이 군수서의 편제인원과 비슷한 정도였으며, 기타 사(司), 서(署), 처(處) 등의 인원은 100명 내외였다(『抗戰各年度軍政部各單位現員編制額數統計』,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11, 典藏號: 008-010705-00007-011, 國史館, 1945).

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그리고 김홍일이 속한 군수서는 군수 전반의 계획과 관리 그리고 군수 관련 경리 등의 군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군수서의 서장은 군수총감(軍需總監)이었는데 이는 중장(中將, 소장)이었다. 군수서 산하에는 재무사, 저비사, 영조사 등의 하부 부서가 있었다. 이들 부서장은 군수감(軍需監)인 소장(少將, 준장)이 맡았다. 각 사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재무사는 군수 관련 경리를 심의했다. 저비사는 피복, 장구, 양말(糧秣, 군량과 말먹이) 등의 구비와 관리 그리고 검열을 담당했다. 영조사는 군수산업의 설계와 건설 그리고 이를 위한 토지수용 등을 처리했다. 또한 각 사에 설치된 과들이 있었는데, 이들 과장은 일등군수정(一等軍需正)인 상교(上校, 대령)가 맡았다. 각 과에는 부관과 서기와 과원들을 두었는데, 가령 저비사와 영조사에는 각기 60여 명이 근무했다. 군수서의 총원은 계속 증가하여 김홍일이 부임할 당시인 1935년에는 210여 명이었으며, 대일전이 끝나는 1945년에는 860여 명까지 늘어났다.<sup>42)</sup>

그렇다면 김홍일은 군수서 설계위원으로서 어떠한 경험을 쌓았을까. 당시 그의 계급은 상교였으므로 군수서에서 일등군수정으로 과장직을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sup>43)</sup> 군수서 설계위원으로서 수행한 주요 임무는 군수품의 준비와 생산 그리고 군수공장의 신설과 이전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가 저비사와 영조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정부 군수서의 설계위원은 단순히 군수품을 관리하고 검열하는 군수 장교가 아니었다.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 군수설계위원은 한

42) 『軍政部組織去草案附編列表』,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 3, 典藏號: 008-010705-00007-003, 國史館, 1935.04; 『抗戰各年度軍政部各單位現員編制額數統計』,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 11, 典藏號: 008-010705-00007-011, 國史館, 1945; 中國第二歷史檔案館, 『軍政部成立經討與組織概要』(1935.4),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5輯, 第1編, 軍事(1), 鳳凰, 1994, 50~59쪽.

43) 김홍일, 앞의 책(1972), 308~309쪽.

마디로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하여 그 준비작업을 계획하는 직책”이었다.<sup>44)</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중반 국민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일 전쟁을 위한 국방 건설에 착수하고 있었다. 국방의 건설을 위해서는 평시부터 군사와 경제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곧 총력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위원회에 직속한 군정부도 총력전을 목표로 움직이게 되었다. 군정부의 중요 부서 중 하나인 병공서는 조직이 확대되어, 중국 전국의 자원을 개발하고 중공업을 육성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sup>45)</sup> 김홍일이 속한 군수서는 중국 동남임해지역에 위치한 군수산업을 일본으로부터 안전한 서부 내륙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국민정부는 대일 지구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와 경제를 종합한 국방 건설을 기획하였고, 이를 지탱할 ‘전략후방기지’로 쓰촨(四川)이 설정되었다. 1935년 이래 쓰촨에는 ‘서북국방건설안’, ‘중공업 5년 건설계획’ 등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중국 각지에 산재한 철강, 기계, 전기 공장 등이 쓰촨으로 재배치되어 군사공업기지 건설이 추진되었다.<sup>46)</sup> 김홍일은 군수국 설계위원들과 쓰촨성 충칭(重慶) 부근에 지하공장을 마련하고 전방의 공장을 이전시키는 일을 맡았다.<sup>47)</sup>

종합하자면, 김홍일은 1920년대 후반 북벌 시기부터 1930년대 초

44) 김홍일, 앞의 책(1972), 308쪽.

45) 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자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병공서 자원사(資源司)와 참모본부의 국방설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개조한 것이었다. 자원위원회는 국방건설을 위해 전국의 자원개발 및 중공업 건설을 전담했다(기세찬, 앞의 책, 50~51쪽).

46) 기세찬, 앞의 책, 52~54쪽.

47) 김홍일은 8년간의 중일전쟁을 무기와 탄약의 부족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설계위원들의 공이 컸다고 자평하였다. 김홍일, 앞의 책(1972), 308~309쪽 참조.

반 항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국민혁명군의 군수참모로 활동했다. 그의 군수참모 경험은 국민혁명군이 군벌들의 연합군에서 국민당의 당군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이해된다. 당시 그가 맡은 군수 업무는 복잡한 무기체계를 통일하고, 계획적으로 군수품을 보급하는 일이었다. 특히 김홍일은 국민혁명군 전체의 군수를 담당하는 군수서 설계위원으로 근무하며, 총력전을 준비하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김홍일의 군수참모 경험을 통해 원론적으로 군수라는 병과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수는 ‘군대가 군사력을 발휘하고 지속·유지하도록 군수품을 지원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제반활동이란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등의 기능을 포괄한다.<sup>48)</sup> 이 과정에서 군수는 필연적으로 업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군수품을 대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업무이다. 특히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군수품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군수품의 수요까지 예측하는 일은 군수 업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즉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한 군수 업무는 수요예측이 핵심이며, 이는 경제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임무이다.<sup>49)</sup>

김홍일은 이처럼 복잡한 군수참모 업무를 별 탈 없이 잘 수행했다고 회고했다.<sup>50)</sup> 복별 종료 이후에도 김홍일은 국민혁명군에서 군수 분야의 주요 참모직을 맡았다. 그가 계속 군수참모로 복무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산포병과로 임관한 그가 자연스레 포탄 등의 군수품을 보급하는 일을 맡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국민혁명군 입장에서는 타국 출신 장교를 일선에 기용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sup>51)</sup>

48) 군수의 성격과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상돈·김철환, 『군수론 : 전쟁의 동맥, 군수를 해부하다』, 청미디어, 2012, 40~49쪽 참조.

49) 이상돈·김철환, 위의 책, 66~70쪽 참조.

50) 김홍일, 앞의 책(1972), 244~245쪽.

51) 1927년 12월 국민혁명군에서 활동 중인 한인 출신 장교 중 다수가 광저우에서 중국공산당의 봉기에 가담했다가 실패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만주사변 이전까지 한

그렇지만 김홍일 스스로가 평소부터 병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임관 당시부터 화포 기술의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52)</sup> 또한 장제스가 주최하는 총사령부회의에 병참총감의 참모로 참석하여 포탄의 재생과 보급에 관한 건의를 제언하기도 했었다.<sup>53)</sup> 1931년 여름에는 일본 육군야전포병학교에 도일 군사유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었다.<sup>54)</sup> 즉 김홍일이 국민혁명군에서 군수 분야의 주요 참모직을 맡은 까닭은 허영친을 비롯한 국민혁명군 수뇌부와의 신뢰관계에 더하여, 그가 군수참모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군수참모로서 김홍일 개인의 소양은 국민혁명군의 군사교육 기관을 통해 전략적 안목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는 국민혁명군이

---

인 출신 장교들은 일선부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다한다(김홍일, 「중일전쟁과 임장: 광복의 꿈을 안고 중국전지를 헤매던 시절」, 『사상계』 146, 1965, 238쪽).

- 52) 김홍일은 운남육군장무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할 당시 “소총구경은 갈수록 작아지고 대포구경은 갈수록 커진다”는 주제의 졸업논문을 제출했었다. 교판단은 논문을 수작으로 선정했고 졸업성적은 200명 중 15등이었다(김홍일, 앞의 책(1972), 66쪽).
- 53)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 1928년 5월 8일 오전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시 당지 아좡(黨家庄)역에서 열린 장제스의 지휘열차에서 군사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북벌 전쟁 도중 산둥 방면으로 일본군이 군사도발을 시도하는 문제에 관한 향후 대책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는 장제스 및 제2집단군 총사령관 평위상(馮玉祥), 제3집단군 총사령관 옌시산(閻錫山) 등이 참여했다. 김홍일도 이 회의에 병기 관련 책임자로 참석하여 각 군의 장비 배치현황 및 재분배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홍일은 옌시산과 함께 국민혁명군이 사용하는 소련제 포탄의 원활한 자체 보급을 위해, 산시(山西) 병공장에서 장약통을 제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홍일, 앞의 글(1965), 239쪽; 앞의 책(1972), 256~258쪽 참조.
- 54) 국민정부는 1927년부터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군사유학을 파견했다. 자격요건의 대강은 25세 이상 35세 미만, 원활한 유학을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에 능숙할 것, 중국 국내에서 인정되는 군사학교를 졸업하였을 것, 현역 복무경력 2년 이상의 뛰어난 간부 등이었다(陶德臣, 「民国军事留学生群体生成探析」, 『军事历史研究』, 2014(3), 132~135쪽). 1931년 여름 김홍일은 일본으로 군사유학을 준비했었다. 그는 8명만 선발하는 일본 육군야전포병학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군사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홍일 및 일행은 그해 9월 20일 일본으로 출발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18일에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계획은 취소되었고 김홍일은 상하이병공장으로 복귀했다(김홍일, 앞의 책(1972), 268~269쪽).

1930년대 후반부터 총력전으로 대일 전략을 일신하고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된다.

### 3. 중국 군사교육기관 수학과 국방 이론의 형성

1930년대 중반 이래 국민혁명군은 대일 전략을 총력전으로 설정하고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있었다. 총력전 수행을 위한 군수의 준비는 범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가령 국가경제를 확충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은 일국의 경제와 동원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앞서 살펴본 바, 김홍일은 국민혁명군에서 군수참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홍일이 국민혁명군 전체의 군수를 관장하는 군정부 군수서에서 설계위원을 지냈다면, 그에게도 총력전에 입각한 일정한 ‘전략적 안목’이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홍일이 국민혁명군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총력전 이론을 학습했다는 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김홍일의 군사 경력에서 등장하는 군사교육기관은 청년 시절의 귀주육군강무학교나 육군실시학교 그리고 도일 직전에 취소된 일본 육군야전포병학교 등이 있다. 그렇지만 김홍일이 고급장교로서 총력전의 전략적 안목을 배양한 곳은 1937년 7월간의 서기훈련단(暑期訓練團)과 1942-43년 간의 육군대학교 특별반 제6기였다고 할 수 있다. 김홍일이 수학할 당시 두 교육기관의 개략을 살펴보고, 이들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총력전 이론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겠다.

우선 루산(廬山) 서기훈련단에 주목할 수 있다. 1937년 7월 김홍

55) 이상돈·김철환, 앞의 책, 71~77쪽.

일은 장시성(江西省) 루산에 설치된 서기훈련단에 참여했다.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sup>56)</sup> 서기훈련단은 장제스가 일본과의 장기전을 구상하며 만든 총력전 연구기관이었다. 이곳에는 일단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각자의 전공분야대로 모여 정치, 군사, 직무에 관한 문제를 검토했다한다.

원래 루산훈련단은 1933~34년 5차 초공작전 과정에서 군관훈련단으로 설치되었다. 당시의 교육은 초중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공산당 토벌을 위한 정치훈련과 군사훈련 위주였다. 그러던 것이 1937년부터 서기훈련단으로 새롭게 조직되어 전사회적으로 대일 총력전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변경되었다.<sup>57)</sup> 서기훈련단의 훈련 목표는 1) 사상체계의 확립, 2) 경제건설의 연구, 3) 국방동원의 준비였다.<sup>58)</sup> 즉 서기훈련단은 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를 동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기훈련단에는 총력전 하의 동원을 연구하기 위해 군과 사회 각 방면의 우수한 간부들이 참여했다. 군에서는 사(師, 사단)장, 려(旅, 여단)장, 참모장급 인원이 참여하였다. 기존의 군관훈련단이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초공을 위한 군사훈련에 치중했다면, 서기훈련단은 총력전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고급장교들을 선발했다.<sup>59)</sup> 또한 서기훈련단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당-국가에서 핵심적인 행정 기관들과 기타 외곽단체가 참여했다.<sup>60)</sup>

김홍일이 학습한 서기훈련단 제1기의 운영개요를 종합하면,<sup>61)</sup> 그

56) 김홍일은 서기훈련단 대신 하계훈련단으로 의역하여 회고했다. 김홍일, 앞의 책(1972), 312~313쪽.

57) 黃道炫, 「1937年的廬山訓練」, 『抗日战争研究』, 2011(1), 30~31쪽.

58) 「本團創辦之經過及其使命—對廬山暑期訓練團第一期全體官長學員講」, 『石叢叢書—言論第六集』 25, 典藏號: 008-010102-00006-025, 國史館, 1937.7.4.

59) 김홍일, 앞의 책(1972), 312쪽; 黃道炫, 앞의 글, 31쪽.

60) 군사 이외에 당무(黨務), 교육, 현정(縣政), 경정(警政), 정훈(政訓), 군훈(軍訓), 동군간부(童軍幹部), 신운간부(新運幹部)가 참여했다(「廬山暑期訓練團服務規則草案」,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10, 典藏號: 008-010703-00010-010, 國史館, 1937.5.10).

가 받은 훈련을 파악 할 수 있다. 훈련단 제1기는 1937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소집되었다. 군사 577명, 교육 1,033명, 헌정 321명, 경정 371명, 정훈 699명, 동군간부 411명, 총원 3,41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각 조는 전공에 따라 중대 단위로 편제되어 훈련을 받았다. 김홍일이 속한 군사조는 제1총대 제1대대 제1, 2중대가 되었다. 훈련은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서기훈련단의 훈련과정에서 핵심은 학과 강의였다. 훈련 시수는 학과 6/10, 술과 4/10로 분별되는데, 학과 강의가 중점이었다.<sup>62)</sup> 군사조가 받은 술과는 실습 위주의 훈련이었다.<sup>63)</sup> 학과 강의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군사조 학과 강의다. 군사조 학과 강의는 국민혁명군의 현역 주요 장성들이 맡았고, 주로 군대의 전술, 행정, 관리법, 개혁문제 등이 다루어졌다.<sup>64)</sup> 둘째는 조별토론이다. 이는 학과 강의를 토대로 훈련 중후반부터 확대 실시되었다. 셋째는 정신 훈화와 특별강연이다. 훈화와 강연은 매일 각 1시간 30분씩 총 3시

61) 「民國二十六年廬山暑期訓練團黨務軍事教育縣政軍訓政訓新運等各組擬請教官及擔任課目表, 該團第一期第一和第二總隊特別講演日期及擔任人員課目預定表和時間分配預定表等」, 『廬山訓練(一)』 5, 典藏號: 002-080102-00121-005, 國史館, 1937; 「二十六年廬山暑期訓練團各期學員召集計畫」,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20, 典藏號: 008-010703-00010-020, 國史館, 1937.5.18; 「二十六年廬山暑期訓練團第一期各組受訓人員統計表」,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15, 典藏號: 008-010703-00010-015, 國史館, 1937.7.12.

62) 「廬山暑期訓練團籌備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紀錄」, 『廬山暑期訓練團有關文件彙編』 3, 典藏號: 008-010703-00016-003, 國史館, 1937.5.18.

63) 보충 및 기관총 사격법, 전투교련, 전투사격 등이 있었다(「民國二十六年廬山暑期訓練團黨務軍事教育縣政軍訓政訓新運等各組擬請教官及擔任課目表, 該團第一期第一和第二總隊特別講演日期及擔任人員課目預定表和時間分配預定表等」, 『廬山訓練(一)』 5, 典藏號: 002-080102-00121-005, 國史館, 1937).

64) 주목할 만한 강의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국군정리문제’는 훈련단 교육장 천칭(陳誠), ‘대군통수’는 국민혁명군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양제(楊杰), ‘군대기술회의 추세’는 국민혁명군에서 기갑분야를 개척한 쉬탕야오(徐庭瑤)가 맡았다(「民國二十六年廬山暑期訓練團黨務軍事教育縣政軍訓政訓新運等各組擬請教官及擔任課目表, 該團第一期第一和第二總隊特別講演日期及擔任人員課目預定表和時間分配預定表等」, 『廬山訓練(一)』 5, 典藏號: 002-080102-00121-005, 國史館, 1937).

간동안 2주간 실시되었고, 훈련단의 교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홍일은 서기훈련단에서 동료 군수설계위원들과 함께 전시의 경리와 보급 등의 실시방안과 이에 관한 법규제정을 검토하였다.<sup>65)</sup> 또한 그는 서기훈련단에서 경리처 부처장직을 겸임했는데,<sup>66)</sup> 그의 회고에 따르면 전시하의 군대 경리에 관한 제도 확립과 악폐 일신에 노력했다 한다. 다만 서기훈련단 개학 직후인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중일전쟁이 개시되자, 전방에서 온 훈련단원들은 복귀하게 되었다. 김홍일은 17일 수료 이후에도 잠시 훈련단 경리처에 남아있었지만,<sup>67)</sup> 이내 중일전쟁에 본격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군사교육기관은 국민혁명군 육군대학교이다. 김홍일은 제3차 장사회전이 끝난 후 제19집단군 총사령 뤼취잉(羅卓英)의 보증으로 충칭에 있는 육군대학교 특별반 제6기에 입학했다. 그는 194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간 수학했고 졸업 성적은 갑등(甲等)이었다.<sup>68)</sup> 김홍일은 육군대학교를 다닌 때가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생애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sup>69)</sup>

기실 각국의 군대를 막론하고 군사대학은 최고 군사교육기관이다. 국민혁명군의 육군대학교 역시 참모 교육뿐만 아니라 장군의 육성까지 목표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육군대학교는 청조 말엽부터 존재했지만, 국민정부가 수립되고 중일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그 교육

65) 김홍일, 앞의 책(1972), 313쪽.

66) 회고에서는 군수처로 언급. 김홍일, 앞의 책(1972), 313쪽; 『廬山暑期訓練團團本部職員銜名冊』,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12, 典藏號: 008-010703-00010-012, 國史館, 1937.7.4.

67) 『廬山暑期訓練團職員銜名冊』,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13, 典藏號: 008-010703-00010-013, 國史館, 1937.7.26.

68) 『邵毓麟呈蔣中正擬准韓人王逸曙除役返國服務』, 『蔣中正總統文物』, 典藏號: 002-020400-00034-143, 國史館, 1948.05.19.

69) 김홍일, 앞의 책(1972), 349~350쪽.

의 내용도 변화하게 되었다.

육군대학교는 일선에서 참모 인원이 부족해지자, 전시기획훈련에 중점을 두고 참모를 육성했다. 중일전쟁 시기 육군대학교에 개설된 강의의 중점은 용병과 건군이였다. 전자인 용병은 사단(師)의 전술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후자인 건군은 병역, 교육, 훈련, 교통, 군수 그리고 국가총동원 하의 동원계획 등에 관한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였다.<sup>70)</sup> 중일전쟁동안 육군대학교는 정규반 제14-20기 총 807명, 특별반 제3-7기 총 665명을 배출했다.<sup>71)</sup> 김홍일이 나온 특별반은 정식과정 3년에서 전적 및 산업 시찰 그리고 방학기간을 단축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된 것이였다.<sup>72)</sup>

육군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략적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 전사(戰史) 연구에 집중했다. 학생들은 전사 연구를 통해 전쟁의 실황을 관찰·이해하고 용병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로 참고 된 전사는 나폴레옹전쟁, 보불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당시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내용이었다.<sup>73)</sup> 특히 김홍일은 유럽전선의 전황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육군대학교에는 유럽전역의 주요작전에서 돌아온 참전무관들의 관전보고가 강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육군대학교에는 유럽 전선에 활약했던 외국 지휘관이 초빙되어 강연을 실시했다. 김홍일은 이러한 자리에서 이집트 전선의 영국군 몽고메리 원수 휘하 사단의 참모장,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 방위전에 참여한 소련군 사단장급 지휘관 등이 직접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sup>74)</sup>

김홍일은 루산 서기훈련단과 육군대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기훈련단의 정신훈화 교범,<sup>75)</sup> 육군대학교의 계간 학

70) 叶銘, 「抗战时期国民党军参谋教育体系初探」, 『抗日战争研究』, 2016(2), 116쪽.

71) 叶銘, 위의 글, 109쪽.

72) 김홍일, 앞의 책(1972), 349쪽.

73) 叶銘, 앞의 글, 116쪽.

74) 김홍일, 앞의 책(1972), 349~350쪽.

75) 「本團創辦之經過及其使命—對廬山暑期訓練團第一期全體官長學員講」, 『石叟叢書—

술지<sup>76)</sup>를 분석해 보겠다. 서기훈련단의 정신훈화는 훈련단의 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신훈화와 특별강연을 맡은 이들은 서기훈련단 단장 장제스와 훈련단 교육장 천칭(陳誠)이었다.<sup>77)</sup> 다만 장제스는 국민당의 여타 훈련기관처럼 기관장 자리만 맡았고, 학교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했다.<sup>78)</sup> 실질적으로 강의를 담당한 것은 천칭이었다. 그의 정신훈화는 교범으로 미리 제작·배부되었고, 주로 국기의 제양과 하강 행사 이후 강습되었다.

육군대학교 학술지에는 교관과 학생들이 각종 군사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 이 자료들은 김홍일이 각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할 당시 발간된 것이다. 김홍일의 총력전 이해 역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기훈련단과 육군대학교의 학습 방향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서기훈련단은 군을 비롯한 국민정부의 각 행정기관들이 모여 총력전을 학습한 곳이다. 따라서 서기훈련단에서는 정치철학적 기초로서 장제스의 ‘역행철학’<sup>79)</sup>이 강조되었다. 이는 쑨원의 철학에서 행동의

言論第六集』25, 典藏號: 008-010102-00006-025, 國史館, 1937.7.4.; 『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升降旗後講<團長手訂訓條略解>(石叟叢書訓詞集)』, 『陳誠訓詞集—民國二十六年』6, 典藏號: 008-010301-00046-006, 國史館, 1937.7.5~1937.7.10;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76)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77) 『廬山暑期訓練團本部職員銜名冊』,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12, 典藏號: 008-010703-00010-012, 國史館, 1937.7.4

78) 『蔣中正廬山暑期訓練團開學典禮訓詞建國要義講稿』, 『廬山訓練(一)』7, 典藏號: 002-080102-00121-007, 國史館, 1937.7.9; 『蔣中正上午主持海會寺暑期訓練團畢業典禮講建國運動, 下午回拈嶺商談對日交涉』, 『二十六年七月份事略稿本』18, 典藏號: 002-060100-00260-018, 國史館, 1937.7.18.

79) 쑨원의 지난이행 철학은 지(知)와 행(行)의 역할을 분담하여, 소수의 ‘선지 선각자’가 ‘후지 후각자’와 ‘불지 불각자’를 이끌어 중국혁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쑨원의 뒤를 이룬 장제스는 쑨원의 진보적 측면을 폐기하고 유심론으로 나아갔다. 이는 인민에게는 ‘진정한 지’라는 명분으로 무지를 요구하고, ‘역행’의

당위를 더욱 강조한 것이었다. 훈련단원에게 국민혁명의 완수를 위해 삼민주의를 실천하고,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것은 최고의 도덕으로 강조되었고, 중화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sup>80)</sup> 당원들은 ‘당원수칙’을, 군인들은 ‘군인독훈’을 교훈으로 삼아 실행하는 길이 삼민주의를 실행하는 길로 제시되었다.<sup>81)</sup>

육군대학교는 군의 참모를 육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군사 전술 강좌가 강조되었다. 특히 학술지 『육대계간』에는 전차나 항공기 그리고 보병·포병 합동 작전 등 선진적인 해외의 전술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들이 연구한 독일, 소련, 프랑스 등의 해외 군사이론 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연 독일의 군사이론이었다. 이는 국민혁명군의 근대화 및 교육훈련 체계화 과정에서 독일 군사고문단이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된다.<sup>82)</sup>

서기훈련단과 육군대학교의 교범은 공통적으로 총력전을 강조했다. 이들 교범의 내용을 통해 국민혁명군의 총력전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국민혁명군의 총력전 이론은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일찍이 쑨원과 장제스는 인류의 생존원리를 경쟁과 투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민당의 지도원리로 강조해 왔다.<sup>83)</sup> 이러한 논리는 인간이 외부의 환경 요건을 극복하고 생활을

---

명분으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장제스는 역행에 입각한 삼민주의 해석을 통해, 국민당 내의 사상적 통일과 당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했다. 이에 대해서는 봉건적 파시즘의 정치학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고영희, 「지행합일에서 역행으로 - 장개석의 『역행철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39, 2014 참조).

80) 「本團創辦之經過及其使命—對廬山暑期訓練團第一期全體官長學員講」, 『石叟叢書—言論第六集』 25, 典藏號: 008-010102-00006-025, 國史館, 1937.7.4.

81) 「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升降旗後講〈團長手訂訓條略解〉(石叟叢書訓詞集)」, 『陳誠訓詞集—民國二十六年』 6, 典藏號: 008-010301-00046-006, 國史館, 1937.7.5.~1937.7.10, 41~43쪽.

82) 기세찬, 앞의 책, 47~48쪽.

83)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 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7~8쪽.

영위하기 위해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외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는 이지적 동물이 되며, 사회라는 집단적 생활에서는 사상이 생겨난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류의 사회생활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지적되었다. 가령 콩트는 유기체, 다윈은 생존경쟁, 스펜서는 심리작용, 마르크스는 경제관계 등을 주장하였다. 다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인간의 생활 원리는 ‘사회적 진화’라는 결론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국민혁명군의 사회진화론 이해에서 개인의 생존은 곧 국가의 생존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해되었다. 또한 국가의 생존이라는 ‘전략’의 실현을 위해 ‘전략’이 도구적으로 합치되는 군사화가 요구된다고 주장되었다.<sup>85)</sup> 즉 인류의 역사 이해에서 개인과 사회, 민족과 국가의 생존이 유기적인 운동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도래할 현대사회의 전쟁 단계는 ‘전민족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국민이 총동원에 대비하고 국방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주장되었다.<sup>86)</sup>

국민혁명군이 총력전을 준비하기 위해 강조한 것은 국방경제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연구가 수용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하 1차 대전) 이후 세계 각국이 전쟁을 복기하며 전시경제를 연구했다. 국민혁명군은 1차 대전 이후 전개된 세계 각국의 전시경제 연구를 경제학의 신경향으로 보았다. 국민혁명군은 국방경제학이나 전체주의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경제학의 역사적 변천에서 한 과정이며, 사회주의에서 나온 한 분파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해외 전시경제 연구경향으로 영국, 미국, 소련 그리고

84) 布爾霖, 「政略與戰略」,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1쪽.

85) 布爾霖, 「政略與戰略」,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6쪽.

86)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 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8~10쪽.

독일과 일본이 파악되었다.<sup>87)</sup>

이 중 국민혁명군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독일과 일본의 국방경제였다. 국민혁명군의 독일의 국방경제 이론에 관한 주목은 주로 1차 대전을 겪은 경험에 있었다. 국민혁명군 육군대학교에서는 1차 대전 당시 독일군 수뇌였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나 빌헬름 그뢰너(Wilhelm Groener) 그리고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등의 회고가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국민혁명군이 독일 국방경제학의 체계적인 이론화로 주목한 것은 쿠르트 헤세(Kurt Hesse)였다.<sup>88)</sup>

쿠르트 헤세는 1차 대전에 참전한 장교 출신으로 경제학 박사였다. 그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중요산업, 가격, 통화, 노동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총체를 국방경제(Wehrwirtschaft)라고 규정하였다.<sup>89)</sup> 헤세는 이러한 경제적 요소와 함께 국가사회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단결이라는 정신적 요소의 결합을 강조하였다.<sup>90)</sup>

국민혁명군이 총력전 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일본의 총력전 개념이었다. 총력전은 이른바 ‘돈에서 돈이 나오고 힘에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적국 일본과의 물적 격차를 따라 잡기 위한 시간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참고해야하는 국가총동원의 ‘완선(完善)’으로 파악된 것은 역설적으로 적국 일본이었다. 이때 참고된 것이 『국방

87) 褚柏思, 「國防經濟與國防經濟學」,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8~9쪽.

88) 褚柏思, 「國防經濟與國防經濟學」,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8쪽.

89) Simpson, Amos E., “Wehrwirtschaft: An Aspect of Nazi Economic Theory”, *Journal of the Arkansas Academy of Science*: Vol. 9, Article 11, 1956, pp. 88-90.

90) Daniel Uziel, *The Propaganda Warriors: The Wehrmacht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rman Home Front*. New York: Peter Lang, 2008, pp. 39-41.

의 본의와 그 강화의 제창』<sup>91)</sup>이었다.<sup>92)</sup>

『국방의 본의와 그 강화의 제창』(이하 『제창』)은 1930년대 일본에서 군부가 주도하여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개조를 촉구하기 위한 기획에서 출판된 소책자였다.<sup>93)</sup> 『제창』 역시 투쟁적인 사회진화론에 입각하고 있다.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이며, 문화의 어머니’로서 패도(霸道)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방은 국가의 생성과 발전의 기본적인 활력이라고 정의되었다.<sup>94)</sup> 『제창』에서 국방력의 구성 요소는 1) 인적요소, 2) 자연요소, 3) 혼합요소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인적요소는 국민의 정신력과 체력의 배양, 자연요소는 영토와 자원에 대한 조사와 관리, 혼합요소는 경제·기술·무력·선전 등의 다양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평시부터 전시경제를 확립하고, 이를 종합통제 할 수 있는 ‘신경제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 『제창』의 요지였다.<sup>95)</sup>

이러한 해외의 국방경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혁명군의 총력전 이론 역시 국방경제의 건설로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역시 국방의 편성을 위한 요건으로 인(人)과 물(物)의 준비와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의 건설이란 국민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비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91) 陸軍省新聞班, 『國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934.

92) 「楊杰呈蔣中正遵擬論文題目為讀禦外侮與興民族後之認識及讀國防之本義及其強化之提倡後之感想轉飭將官講習班各學員限期交卷等文電日報表」, 『一般資料—呈表彙集(四十)』 101, 典藏號: 002-080200-00467-101, 國史館, 1936.1.29.;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 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8~12쪽.

93) 이 소책자는 출간되자마자 정치·언론·학계에 ‘팸플릿 사건’이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제창』과, ‘팸플릿 사건’ 그리고 일본 총력전장교에 관해서는 마이클 A. 반하트 저, 박성진·이완범 역, 앞의 책, 2016; 박성진,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 『군사』 89, 2013 참조.

94) 陸軍省新聞班, 『國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934, 1~2쪽.

95) 陸軍省新聞班, 『國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934, 52~56쪽.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방 건설은 제국주의에 대한 항전이며, 민국의 건설이라는 국민혁명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sup>96)</sup>

국민당의 이데올로기인 삼민주의에서 민생주의 강령을 통해 국방 경제가 내적으로 수용되었다. 국민혁명군은 쑨원이 제시한 민생주의에서 인민과 민족의 생존은 국가와 사회의 부강에 달린 것으로 해석하여, 민생주의는 곧 경제주의이며 국방경제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민생주의에 내포된 정치경제적 문제의식은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이해된 것이다.<sup>97)</sup>

다만 일본의 침략에 당면한 중국으로서는 국방건설을 위한 물질 준비의 여유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미 일본이 국방상의 물질적 준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물질적 격차를 좁힐 여력이 부족했다. 국방경제 건설을 위한 물질적 준비에는 전문적인 계획과 재능 그리고 다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98)</sup>

결국 중국이 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으로 경제적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인적 요소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다. 국방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민생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었다.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이라도

96) 「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升降旗後講<團長手訂訓條略解>(石叟叢書訓詞集)」, 『陳誠訓詞集—民國二十六年』 6, 典藏號: 008-010301-00046-006, 國史館, 1937.7.5.~1937.7.10, 56~58쪽;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 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5~10쪽.

97) 褚柏思, 「國防經濟與國防經濟學」,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9~10쪽.

98) 「幹部與全民對於國家總動員之認識及任務講評(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該團降旗後講)及附錄總動員項目及各級幹部與全民之任務表」, 『陳誠言論集—民國二十六年(四)』 19, 典藏號: 008-010301-00014-019, 國史館, 1937.7.17, 11쪽.

국방의 역량 증대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었다. 즉 전국 인민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법령 하에 보장받고 동시에 지배받아야한다고 여겨졌다.<sup>99)</sup> 사회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 역량을 건전하고 원활하게 절제·사용해야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혁명군은 군사와 사회의 결합을 강화하고자했다. 이는 군대가 민중의 전위가 되어 ‘사회정치적 군사화’를 이끌고, 군사기율을 통해 사회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제·운용하는 것이었다.<sup>100)</sup>

#### 4. 한국군 육군사관학교장 역임과 『국방개론』 저술

1945년 8월 15일 이후 김홍일은 국민혁명군에 남았다. 그 해 11월 김홍일은 소장(少將, 준장)으로 진급하고 국민정부의 만주지역 접수에 참여하여 한교(韓僑) 처리문제를 담당했다. 당시 남한 지역에서는 1946년 이후 미군정의 주도로 군대 창설이 준비되고 있었다. 유동열과 이범석이 중국군 및 광복군 출신을 규합하며 김홍일에게 참여를 제안해 왔었다. 다만 김홍일은 이때 중국을 떠나지 못했고,<sup>101)</sup> 이후 국공내전에서 국민혁명군이 밀려나게 됨에 따라 1948년 8월 하반기 김홍일은 항공편으로 한국에 귀국했다.<sup>102)</sup>

99) 褚柏思, 「國防經濟與國防經濟學」, 『陸大季刊第九期』, 『國防軍事刊物』 1, 典藏號: 001-070000-00043-001, 國史館, 1942.7.7, 9~10쪽.

100) 「廬山暑期訓練團教育長陳誠在升降旗後講<團長手訂訓條略解>(石叢叢書訓詞集)」, 『陳誠訓詞集-民國二十六年』 6, 典藏號: 008-010301-00046-006, 國史館, 1937.7.5.~1937.7.10, 54~58쪽.

101) 「邵毓麟呈蔣中正擬准韓人王逸曙除役返國服務」, 『蔣中正總統文物』, 典藏號: 002-020400-00034-143, 國史館, 1948.05.19; 김홍일, 앞의 책(1972), 431~432쪽; 박경석, 앞의 책(1984), 265~266쪽, 277~278쪽.

102) 회고록(김홍일, 앞의 책(1972), 451쪽)은 1948년 8월 28일, 또 다른 회고에서는 8월 25일이었다(김홍일, 「창군당시의 이야기: 국군초창기의 회고」, 『해군』 118,

김홍일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귀국하여 한국군에 참여했고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1948년 9월초 귀국 직후 김홍일은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부탁으로 신태영과 함께 한국군의 편성, 훈련 등에 관한 계획에 자문했다고 한다.<sup>103)</sup> 12월 초 김홍일은 이범석과 함께 한국군의 단결을 도모할 것을 장제스에게 피력하며, 사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각 군 간부를 국가의 주장과 일치·융합시킬 것을 보고했었다.<sup>104)</sup> 12월 10일 김홍일은 육군 준장으로 임관하여 육군본부에 배속되었고, 1949년 1월 15일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곧이어 2월 4일 소장으로 진급했다.<sup>105)</sup>

김홍일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신훈화를 강조하고 직접 강의도 했다. 김홍일은 제8기 사관후보생들에게 매주 월요일 첫 시간, 각 특별반 사관후보생들에게는 수시로 정신훈화를 강의했다.<sup>106)</sup> 김홍일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정신훈화를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주국방 훈련으로 국토통일’, ‘군기확립으로 사상통일’ 등이었다 한다.<sup>107)</sup> 김홍일의 정신훈화에는 국민혁명군 경험이 반영되어 있었다. 가령 국민정부가 군벌의 통제에 실패해 국공내전에서 쫓긴 사례는 그가 국민혁명군에서 절감한 내용이었다.<sup>108)</sup>

특히 김홍일의 정신훈화 강의 내용은 사상적 측면에서 장제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은 옛 병학가들이 군인정신으로 제시한 지(智)·신(信)·인(仁)·용(勇)·엄(嚴)의 오달덕(五達德)을

1962, 22쪽); 미군은 26일로 기록했다("Kim Hong Il - Who's Who" (1956.11.26),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Who's Who Reports, 1956 - 1958 [Entry NM3 85H], 930040-Korea [319-5912-31-4]).

103) 김홍일, 앞의 글(1962), 22쪽.

104) 「王逸曙呈蔣中正肅清中共予韓聲援擬就任士官學校校長之職等」, 『革命文獻-蔣總統訪韓』 148, 典藏號: 002-020400-00034-148, 國史館, 1948.12.15.

105) 「임관순대장(김홍일, 12329)」.

106) 박경석, 앞의 책(1984), 298쪽.

107) 박경석, 『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46~47쪽.

108) 박경석, 앞의 책(1984), 304~305쪽.

강의했다. 오달덕은 일찍이 장제스가 루산 군관훈련단에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했지만,<sup>109)</sup> 흥미로운 것은 김홍일의 지에 대한 해석이다. 김홍일은 ‘지’를 ‘자동(自動)’ 정신으로 정의하며, 군인 개인이 단순히 지식을 교육받는데 그치지 않고 지식을 기초로 자신이 판단하여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10)</sup> 또한 김홍일은 군인정신의 확립을 위해 생활 관리를 통해 인격을 개조해야함을 역설했다. 군대에 모인 각자의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형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면적 구속을 통한 생활 관리로써 인격과 정신을 개조해야한다는 것이었다.<sup>111)</sup> 이처럼 김홍일이 강조한 앎과 행동의 일치, 생활의 외면적 규율을 통한 인격의 개조 등은 장제스의 ‘역행철학’과 관련이 깊은 것이었다.

김홍일이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국방개론』<sup>112)</sup>을 집필했다. 이 책은 김홍일이 1949년 7월 15일 입교한 육군사관학교 10기(생도 1기)의 교육을 염두하고 집필한 것인데,<sup>113)</sup> 11월 중순 대증서로 발간되었다. 『국방개론』을 통해 김홍일의 국방론을 파악해볼 수 있다.

『국방개론』은 김홍일이 국민혁명군에서 체득한 경험과 국방이론을 바탕으로 신생 한국군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김홍일이 제시한 방향은 도래할 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를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을 통합한 국방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국방개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홍일의 국방론에서 드러나는 세계관은 우승열패를 사회발전의 기본 원리로 이해하는 사회진화론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김홍일은 “「생존경쟁엔 우승하고 열패한다」한 다알문(다윈)의 말은 누구나 부

109) 「蔣中正書勉廬山軍官團員發揚三民主義建立智信仁勇嚴武德」, 『籌筆—統一時期(一一六)』 063, 典藏號: 002-010200-00116-063, 國史館, 1934.7.24.

110) 박경석, 앞의 책(1984), 302쪽.

111) 박경석, 앞의 책(1984), 310쪽.

112) 김홍일, 『국방개론』, 고려서적, 1949.

113) 박경석, 앞의 책(1984), 317쪽.

정할 수 없다”고하며 인류의 역사를 전투의 역사로 파악했다. 김홍일은 “생활은 전투”라는 전제 하에 의·식·주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절대조건으로 파악하고, 이의 획득과 생활을 위해 자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위력을 국가민족에다 확대시킨 것이 「국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홍일은 “인류의 적대감정과 적대 의도는 인류전쟁의 2대요소라”는 그로세웨치(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인용하며, 적대야말로 “「국방」건립의 정신적 원인”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홍일은 우승열패의 세계에서 인류는 안전한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쟁은 “참혹한 일이나 인류 역사를 추동하여 전진케하는 기본동력”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홍일에게 사회진화론적 투쟁의 원리는 “인류의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류의 현상황 타파를 요망”하는 ‘생명력’의 원리로 파악되었다.<sup>114)</sup>

김홍일이 제시하는 국방의 건설 요건은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보편적인 국방 논리에 입각하고 있었다. 즉 김홍일이 국방의 요소로 제시한 1) 인적요소, 2) 물적요소, 3) 종합요소라는 구분은 1930년대 이래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된 국방담론의 영향이라 사료된다. 가령 국민혁명군의 국방 논의에서 가장 많이 참고된 독일의 루덴도르프는 국방의 기초를 ‘국민정신의 단결’과 ‘경제’로 파악하고 있었다.<sup>115)</sup> 또한 국민혁명군에서 번역까지 하며 연구과제로 삼은 일본군의 국방론<sup>116)</sup>은 국방의 구성요소를 1) 인적요소, 2) 자연요소, 3) 혼합요소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홍일이 “일본육군대학 출신으로 중국 전략가의 제1인자”<sup>117)</sup>라고 칭한, 국민혁명군의 양제(杰楊) 역시 그의 저서 『국방신론』에서 국방요소로 1) 인적요소, 2) 자

114) 김홍일, 앞의 책(1949), 11~13쪽.

115) Erich Ludendorff, *Der Totale Krieg*, Ludendorffs Verlag, 1935.

116) 陸軍省新聞班, 『國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934.

117) 김홍일, 앞의 책(1972), 250쪽.

연요소, 3) 혼합요소를 제시했다.<sup>118)</sup>

김홍일이 구상한 한국군의 편성은 어떠했을까. 김홍일은 일국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비군의 유효 상한 비율은 인구 대비 8/1000 수준이라고 설정했다. 따라서 1949년 당시 인구 3,000만 명 중 상비군은 24만 명이 적정하다고 제시되었다.<sup>119)</sup> 또한 김홍일은 “육군은 공세적 작전을 취해야 적을 국내로 드리지 않고 전장을 국외로 정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1개 사단은 탱크, 모터사이클, 기관총, 각종 화포 등 중급 장비를 갖춘 12,000명으로 하고, 최소 상비사단 15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에서 만주와 시베리아의 대평원작전에서 장갑사단 3개 및 모터화사단 3개, 국경산악지대작전에 산악사단 2개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육군과 함께 ‘입체전’을 위해 폭격기를 위시한 공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120)</sup>

이러한 김홍일의 군 건설 기획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독일 군사학의 영향이다. 육군의 기계화와 공군의 협동을 통한 입체전의 강조 등은 김홍일이 『국방개론』에서 수 차 언급한 “독일의 기계화전격전” 교리였다.<sup>121)</sup> 김홍일이 국민혁명군의 육군대학교에 수학할 당시 중국 전술학의 주된 참고가 독일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편성에도 독일 군사이론이 다시금 참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22)</sup>

118) 양제는 1932년부터 중국 육군대학교 교장이었다. 김홍일의 『국방개론』에서 양제의 『국방신론』을 일부분 요약 번역하여 실은 내용이 보인다. 杰楊, 『國防新論』, 中華書局, 1942 참조.

119) 김홍일, 앞의 책(1949), 79쪽.

120) 김홍일, 앞의 책(1949), 83~86쪽.

121) 김홍일, 앞의 책(1949), 39~41쪽.

122)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전으로 진행됨에 따라 독일은 정치경제적 약점을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간기 ‘전격전’ 이론이 체계화되었다. ‘전격전’은 기계화 부대를 핵심으로 기동전을 펼쳐 단기결전으로 승전을 거둔다는 공세적인 전쟁계획이었다. 다만 당시로서는 ‘전격전’ 실현을 위한 개념적·기술적 완비가 이

다른 한 가지는 김홍일의 가상적(假想敵)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김홍일은 1949년 『국방개론』을 집필할 때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소련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책에서 육군이 공세작전을 취해 전장을 국외로 두고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기계화 부대를 운용할 것을 역설했다.<sup>123)</sup> 또한 그의 지정학적 정세인식에서도 “태평양 진출에 여념 없는 소련과 새로 적화된 중국과 제국재건을 꿈꾸는 일본”이 위협적인 인접 국가로 인식되었고,<sup>124)</sup> 북한은 설명되지 않았다. 1949년 당시 김홍일에게 이른바 ‘주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홍일이 향후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낙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홍일의 국방관은 투쟁을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라도 “식민지마다 전쟁이 여전히 계속될 뿐더러, 강국 간의 냉전전은 더욱 심핵화하여 가는 양이 제3차 세계대전이 장차 폭발될 상”이라고 파악했다.<sup>125)</sup> 또한 소련이 북한 인민정부를 배양하며, 일전을 결심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다만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아직 진공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미국의 원조가 미약하다고 지적되었다.<sup>126)</sup> 국가 간의 관계에서 외교로 국방을 건설한다는 ‘연합국방’은 “믿을 길이 못된다”고 판단되었다.<sup>127)</sup> 즉 김홍일은 장차 한국이 당면할 전쟁은 북한 방면에

---

루어지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총력전은 국민과 경제의 광범한 동원 하에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전개되었다. 단기결전을 지향하는 ‘전격전’은 총력전과 모순되었고, 작전상의 공세주의만을 추구하는 한계를 노정했다(James S. Corum, *The roots of Blitzkrieg : Hans von Seeckt and German military reform*,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2; 게하르트 P. 그로스 저, 진중근 역,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 : 총참모부 작전적 사고의 역사 : 헬무트 폰 몰트케부터 아돌프 호이징어까지, 길찾기, 2016 참조).

123) 김홍일, 앞의 책(1949), 83쪽.

124) 김홍일, 앞의 책(1949), 79쪽.

125) 김홍일, 앞의 책(1949), 3쪽.

126) 「王逸曙呈蔣中正肅清中共予韓聲援擬就任士官學校校長之職等」, 『革命文獻-蔣總統訪韓』 148, 典藏號: 002-020400-00034-148, 國史館, 1948.12.15.

서 소련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 기계화부대를 기동하여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나아가 요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이었다. 김홍일은 한국은 “현대화 군대에 가장 필요한 석유가 없고”,<sup>128)</sup> “해외식민지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장차에도 가질 희망이 박약”하다고 지적했다.<sup>129)</sup> 더군다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일본중심의 소위 일선만일 체화 경제조직의 중계지구였든 관계상 중요공업이 북한에 편재”되어 있어,<sup>130)</sup> 분단 이후 남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1949년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병력의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이 김홍일의 분석이었다.<sup>131)</sup>

김홍일은 1949년 당시 한국의 국방건설을 위한 방책으로, 국가주도의 강력한 통제경제를 주장했다. 그는 국방경제의 건설 방향은 “물자활동과 금융활동을 통일집중하여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자유경제조직을 통제경제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았다. 통제경제의 주체는 국가였다. 김홍일은 원료, 연료, 노동력, 공장, 이윤 등을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합리배분’하는 주체로 국가를 설정했다.<sup>132)</sup> 가령 중공업부문에서 채광, 기계, 화학, 동력 등은 ‘직접국방공업’으로 국가가 직영·통제하도록 기획되었다. 건축, 연료, 금속원료, 보통화학 등은 ‘간접국방공업’으로 설정되어, 민영을 주로 하되 관리권을

127) 김홍일, 앞의 책(1949), 32쪽.

128) 김홍일, 앞의 책(1949), 80쪽.

129) 김홍일, 앞의 책(1949), 82쪽.

130) 김홍일, 앞의 책(1949), 95쪽.

131) 각국의 평시 국방예산은 국가총수입의 1/5 또는 1/3인데, 1949년 당해 국회수정 예산 총수 익 570억 중 국방부경비가 130여 억으로, 이는 1/5의 적정수준이라 보았다. 다만 당시 지폐가치로는 정규군 10만 명과 호국군 20만 명의 건설은 역부족이라고 보았다. 또한 외국의 무장원조로도 그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홍일, 앞의 책(1949), 79~80쪽 참조.

132) 김홍일, 앞의 책(1949), 70~72쪽.

국가가 가지고 공영할 것으로 설정되었다.<sup>133)</sup>

김홍일은 국가주도의 국방건설 주체로 ‘최고국방위원회’를 설정했다. 김홍일의 기획에 따르면, 최고국방위원회의 조직은 행정수반을 위원장으로 두고 각 부 장관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연구위원회를 두어 최고국방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연구·심의하여 구체안을 작성토록 기획했다. 또한 최고국방위원회는 행정 각부에 예속기관을 두어 담당 부문별 총동원의 조사와 준비를 공작하게 설정했다.<sup>134)</sup> 김홍일은 이미 시행중인 ‘국군조직법’<sup>135)</sup>에 최고국방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속히 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한곳에다 융화시키는 통일된 국책결정과 지도기관이 조직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sup>136)</sup>

그렇지만 김홍일의 국방건설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홍일은 국방건설을 “E.C.A의 원조를 이용하여 동력으로부터 중공업, 군수공업, 교통의 신건설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설정했다.<sup>137)</sup> 즉 김홍일은 국방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미국의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협조처)의 경제원조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일국의 자주적 국방을 위해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모순적 상황이었다. 김홍일은 미국의 원조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지만,<sup>138)</sup>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1949년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또한 미국의 ECA 원조가 ‘개발’을 천명한 만큼,

133) 김홍일, 앞의 책(1949), 94~95쪽.

134) 김홍일, 앞의 책(1949), 76~77쪽.

135) 제4조 대통령의 유약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다. 군사삼의원(「국군조직법」, 1948년 11월 30일 제정·시행).

136) 김홍일, 앞의 책(1949), 52쪽.

137) 김홍일, 앞의 책(1949), 94~96쪽.

138) 「王逸曙呈蔣中正肅清中共予韓聲援擬就任士官學校校長之職等」, 『革命文獻-蔣總統訪韓』 148, 典藏號: 002-020400-00034-148, 國史館, 1948.12.15.

김홍일이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ECA 경제원조는 본격적인 산업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것이었다.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저개발 국가 근대화론의 대세를 이룬 것은 이른바 ‘낮은 수준의 근대화’(low modernization)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이란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는데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었다.<sup>139)</sup> 게다가 1949년 하반기 ECA 원조계획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로 1950년 2월까지 미국 의회에서 계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원조물자의 조사와 선정 그리고 결정은 미국의 관할이었다. 즉 미국이 향후 한국의 군사와 경제에 강한 규정력을 가진 상황에서, 군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가 결합된 김홍일의 국방론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김홍일의 국방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국민혁명군 군수 참모 경험과 군사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국방이론은 그의 국방론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체로 김홍일의 생에서 독립운동이 주목되었기 때문에 그의 국민혁명군 이력은 부각되지 못했었다. 국민혁명군은 1930년대 후반부터 총력전으로 대일 전략을 일신하고 국방역량을 강화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홍일의 국민혁명군 경험 역시 국방건설이라는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김홍

139) 195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미국의 ECA사업과 ‘개발’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봉석,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지역 미국 경제협조처사업의 성격 -중국본토 및 타이완의 농촌부흥연합회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3), 2018.

일이 국민혁명군의 군수를 총괄하는 군정부 군수서에서 복무한 점, 국민정부의 총력전 간부를 육성한 루산 서기훈련단에 참가한 점, 참모육성의 최고기관인 육군대학교에서 수학한 점 등이 주목된다.

김홍일은 귀국 이후 한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다. 당시 김홍일은 국민혁명군 경험에 기초하여, 신생 한국군을 위한 군사이론으로 『국방개론』을 저술했다. 김홍일의 군사이론은 도래할 총력전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를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을 통합한 국방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김홍일은 한국의 국방건설을 위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통제경제 건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방건설의 주체로서 군사를 중심으로 사회 제분야가 조직된 최고국방위원회의 운영을 촉구했다.

다만 김홍일의 국방건설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홍일은 국방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미국의 ECA 원조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ECA 원조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 ‘낮은 수준의 근대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 투자될 수 없었다. 특히 김홍일의 국방 이론은 군사-경제-정치의 결합을 전제로 국가 주도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이나 인권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홍일이 개진한 국방론의 명맥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국가 주도의 계획 하에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합목적적으로 극도의 능률을 강구하는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한 문제이다. 가령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8기가 김홍일에게 받았다는 감화를 상기할 수도 있겠지만,<sup>140)</sup> 김홍일의 국방이론이 가진 당대적 보편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김홍일의 군사사상은 1930년대 중반 중국 국민혁명군에서 배양되었고, 국민혁명군의 국방이론은 1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군사이론에

140) 박경석, 앞의 글(1984), 315쪽.

영향을 받았다. 이들 국가에서 국방의 건설은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대외 침략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과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한 첩경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48년 한국군의 창설과 그 전후를 관류하는 국방 건설의 문제는 보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9. 7. 2, 심사수정일 : 2019. 8. 5, 게재확정일 : 2019. 8. 9)

주제어 : 김홍일, 창군기, 국방국가, 국방경제, 국방개론, 총력전, 국민혁명군, 군수참모

### <참고문헌>

- 김홍일, 『국방개론』, 고려서적, 1949.
-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 「임관순대장(김홍일, 12329)」
- 김홍일, 「창군당시의 이야기: 국군초창기의 회고」, 『해군』 118, 해군본부정훈감실, 1962.
- 김홍일, 「중일전쟁과 임정: 광복의 꿈을 안고 중국천지를 헤매던 시절」, 『사상계』 146, 사상계, 1965.
- 루덴돌프 저, 최석 역, 『국가총력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72.
- Erich Ludendorff, Der Totale Krieg, Ludendorffs Verlag, 1935.
- ルーデンドルフ 著, 間野俊夫 譯, 『國家總力戰』, 三笠書房, 1938.
- 陸軍省新聞班, 『國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934.
- 國史館, 군정부: 『軍政部長任內軍政部組織』, 『軍政部大事記(四)』,
- 國史館, 루산훈련단: 『廬山軍官訓練團教育長任內資料』, 『廬山暑期訓練團有關文件彙編』, 『廬山訓練(一)』, 『陳誠訓詞集』, 『陳誠言論集』, 『石叟叢書』
- 國史館, 육군대학교: 『陸大季刊第九期』
- 國史館, 김홍일: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 中國第二歷史檔案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5輯 第1編 軍事(1), 鳳凰, 1994.
- 게하르트 P. 그로스 저, 진중근 역,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 : 총참모부 작전적 사고의 역사 : 헬무트 폰 몰트케부터 아돌프 호이징어 까지, 길찾기, 2016.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기세찬,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권사전략(1937-1945)』, 경인문화사, 2013
- 마이클 A. 반하트 저, 박성진·이완범 역, 『일본의 총력전: 1919~1941년 경제 안보의 추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박경석, 『전용실록소설 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 박경석, 『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 윤상원, 『김홍일 : 대륙에 용맹을 떨친 맹장』, 역사공간, 2015.
- 이상돈·김철환, 『군수론 : 전쟁의 동맥, 군수를 해부하다』, 청미디어, 2012.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 고영희, 「지행합일에서 역행으로 - 장개석의 『역행철학』을 중심으로 -」, 『양명학』 39, 한국양명학회, 2014,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47.2014..39.002&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47.2014..39.002&res_svc_cd=)
-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58.2014..68.005&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58.2014..68.005&res_svc_cd=)
- 박성진,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 『군사』 8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3,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528.2013..89.002&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528.2013..89.002&res_svc_cd=)
- 박창희, 「군사사상 연구를 위한 방법론 구상」, 『국방정책연구』 32(2), 한국국방연구원, 2016,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646.2016.32.2.003&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646.2016.32.2.003&res_svc_cd=)
- 방기중·전상숙, 「일본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 - 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혜안, 2006.
- 윤상원, 「1920년대 전반기 김홍일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0.2014..47.005&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0.2014..47.005&res_svc_cd=)
-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 한강선 방어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9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528.2016..99.003&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528.2016..99.003&res_svc_cd=)

- 한상도, 「일제하 재중한인독립운동의 국제적 배경 : 중국군벌정권 및 국민당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대사학』 8, 건국대학교 사학회, 1993.
- 한시준, 「중국군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홍일」, 『사학지』 57, 단국 사학회, 2018.
- 허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주의」, 『한국사연구』 150, 한국사연구회, 2010.
- 허은, 「냉전분단시대 ‘대유격대국가’의 등장」, 『한국사학보』 65, 고려 사학회, 2016,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361.2010..150.004&res\\_svc\\_cd=](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361.2010..150.004&res_svc_cd=)
- 한봉석,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지역 미국 경제협조처사업의 성격 -중국본토 및 타이완의 농촌부흥연합회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3),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 山田朗, 「帝國主義と軍事力編成-國家總力戰型軍事力編成を中心に」, 『歴史評論』 422, 歴史科学協議会, 1985.
- 山之内靖, 「方法的序論 - 總力戰とシステム統合」, 山之内靖 외 편, 『總力戰と現代化』, 柏書房, 1995.
- 崎山政毅, 「『總力戰体制』 研究をめぐるいくつかの疑義—システム社会論の視座からの總力戰体制分析に関して」, 栗原幸夫 편, 『戦後論存疑』, 1998.
- 张燕萍, 「抗战前国民政府经济备战的军事价值初探」, 『民国档案』, 中国第二历史档案馆, 2003(4)
- 陶德臣, 「民国军事留学生群体生成探析」, 『军事历史研究』, 国防大学国家安全学院主办, 2014(3)
- 黄道炫, 「1937年的庐山训练」, 『抗日战争研究』,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 2011(1)
- 叶铭, 「抗战时期国民党军参谋教育体系初探」, 『抗日战争研究』, 南京师范大学抗日战争研究中心, 2016(2)
- 郭岱君 主编, 『重探抗戰史(一): 從抗日大戰略的形成到武漢會戰(1931-

1938)』, 聯經出版公司, 2015.

James S. Corum, The roots of Blitzkrieg : Hans von Seeckt and German military reform,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2

Simpson, Amos E., “Wehrwirtschaft: An Aspect of Nazi Economic Theory”, Journal of the Arkansas Academy of Science: Vol. 9 , Article 11, Arkansas Academy of Science, 1956.

## General Kim Hong-il's Experience of National Revolutionary Army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n 'WehrStaat' Theory

Kim, Ji-hoon

This article throws light on the military experience and national defense theory of Kim Hong-il by examining the formation of his defense theory during his career in the National Revolutionary Army of the Republic of China. While previous research on national defense has focused either on the Japanese occupation or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ra, this paper directs attention to the period around August 1948, whe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were established.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bridge the two separate time periods and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military ideology as a continuous theoretical development.

The discourse on building national defense, or Wehrstaat, emerged from the lessons of war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 In the era of total war, it meant making preparations for war in peacetime. It required the integration of state-controlled economy with politics for military ends, the process of which involved violence. The theory of Wehrstaat was put forth by German theorists, most notably by Erich Ludendorff. In East Asia, Japan adopted and expanded on it from the 1920s, a change urged on by a group of "total war officers." From the 1930s, the Nationalist Party of China (KMT) drew from these sources in its attempt to build its own national defense.

During his service with the KMT Revolutionary Army, Kim Hong-il took part in the Northern Expedition against regional warlords, Encirclement Campaigns agains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gainst the Imperial Japanese Army. He started out as an officer on the front, gradually rising to the rank of brigadier-general. It is noteworthy that throughout his military career with KMT, his responsibility was in supply and logistics. He served as

quartermaster for a subsidiary organization to the Ministry of Defense within the Military Commission. Kim Hong-il mastered national defense theory at Lushan summer training camp, and later at the Military University in Chongqing. The KMT version of national defense he was taught could be traced back to Japanese and German Wehrstaat theory.

Kim Hong-il returned to Korea in August 1948,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med Forces. He participated in the early organization of the army and was appointed principal of Korea Military Academy. Around this period, he wrote Introduction to National Defense as a textbook for the cadets, but it was also available for purchase to the general public.

Kim Hong-il's national defense theory had been formulated for the newly-created Korean army. He argued for a strong state-controlled economy in order to build national defense. It was his belief that every sector of society should be re-organized around the military. He advocated the installation of a Supreme Commission of National Defense to oversee this process.

Unfortunately, Kim Hong-il's scheme was impractical from the beginning. He wanted to use US assistance vi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to implement his plans. However, ECA aid in East Asia in the 1950s operated on the level of enhan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t was unlikely that Kim Hong-il's proposal could be adopted, since the underlying logic of his scheme would have been unacceptable to US authorities.

Nevertheless, it cannot be said that the theoretical tradition of national defense was lost in Korea after Kim Hong-il. The national defense ideals of militarization, economic independence and maximum efficiency are some of the most contentious topics in modern Korean history. In general, national defense theory can be understood as the military aspect of revised capitalism after World War I and the Great Depression. It was a radical development strategy deployed by latecomer capitalist countries, as well as an effective shortcut to nation-state building in postcolonial countries like China and Korea.

Key words : Kim Hong-il,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national defense, Wehrstaat, Wehrwirtschaft, Introduction to National Defense, total war, National Revolutionary Army, quartermaster staff